〈제 528호〉

-주간- 광주 경영계

KEF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MPLOYERS FEDERATION

광주은행

◈ 전남 소상공인 지원 10억원 특별출연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지난달 26일 순천 아랫장 야시장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송종욱 은행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과 '제로페이-전남'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역 소기업 · 소상공인을 위해 전남신용보증재단과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광주은행은 어려운 지역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특별출연 금액을 전년대비 3억원 증액한 10억원을 전남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 하기로 했다. 이를재원으로 전남신용보증재단은 총 120억원의 특별보증을 지원한다.

금호고속

◈ 성남~강진 신규노선 개통

금호고속(사장 이덕연)이 지난 1일부터 성남-수원-나주-영암-강진을 운행하는 신규 노선을 개통했다. 이번 노선은 성남에서 오전 9시30분과 오후 3시50분 두 차례 출발해 운행되는 시외 우등형 버스로, 총 소요시간은 4시간55분이다.

강진에서 출발하는 상행노선은 오전 9시20분과 오후 3시 두 차례다. 중간 경유지인 영암 출발시간은 오전 9시45분과 오후 3시25분, 나주 출발시간은 10시 20분과 오후 4시다. 요금은 성남~강진 4만1천700원, 성남~영암 3만7천200원, 성남~나주 3만2천원이며, 수원~강진 3만8천300원, 수원~영암 3만7천200원, 수원~나주 2만8천600원 이다.

럭키산업

◈ 전남대병원 발전후원금 1억원 기탁

럭키산업(회장 박흥석)은 지난달 25일 KBC광주방송 대표이사실에서 전남대학교병원 발전후원금으로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원을 지정 기탁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박흥석 회장, 허정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이삼용 전남대학교병원장, 조억헌 KBC대표이사, 김상균 전남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기탁된 1억원은 전남대학교병원을 이용하는 저소득 불우환자의 암 · 난치병 · 불치병 치료 등 의료비 지원을 위해 쓰여진다.

금호타이어

◈ 12개 대학과 산학협력 체결

금호타이어(대표이사 전대진)는 지난달 21일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금호타이어 세일즈 트레이닝 센터에서 자동차학과 보유 12개 대학 (13개 캠퍼스)와 타이어산업 전문인력 양성과 맞춤형 인력 취업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조선이공대 등 총 12개 대학이 참여했다. 금호타이어는 해당 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최종 취업의사가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타이어 전문가 교육 실시 후 전국 타이어프로와 KTS를 대상으로 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해양조

◈ 젊은잎새 봉사단 · 임직원 연탄배달 봉사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는 지난달 23일 광주 동구 지원동에서 젊은잎새 대학생 봉사단원과 임지선 대표 및 임직원 50명이 연탄배달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는 저소득 가정과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등 연탄이 꼭 필요하지만 부족하거나 나를 수 없는 가정 세 곳을 방문해 연탄을 전달했다. 지난 2006년 창설된 젊은잎새 대학생 봉사단은 보해양조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금까지 광주전남지역 대학생 1,200여명이 활동했다

해양도시가스

◈ 사랑의 에너지로 사회공헌활동 실천

해양도시가스(사장 김형순)는 지난달 21일 임직원들이 광주지역 노인복지시설 4곳을 방문해 정성 어린 배식봉사를 펼쳤다.

사랑의 에너지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매월 셋째주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노인복지시설 배식봉사와 지역아동센터 학습지도 외 가스안전 스쿨(School), 가스 타이머콕 및 장학금 지원, 김장 담그기, 산타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제39회 정기총회 개최〉

-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 확정
- 차기 회장으로 김봉길 삼각에프엠씨 회장 선임
- 제20회 노사협력대상「한국알프스」수상

본회(회장 최상준)는 2월 26일 오전 신양파크호텔에서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장, 김영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박성수 광주전남연구원장 등 유관기관장과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9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확정하였으며, 내년 2월 임기만료 되는 현 최상준 회장 후임으로 김봉길 삼각에프엠씨 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선임했다. 김봉길 회장의 임기는 2020년 3월부터 시작된다. 한편, 한국알프스(주)가 제20회 노사협력대상을 수상하였으며, 금호고속(주)고속사업부 나원주 등 노사협력유공자 5명에 대한 시상식도 가졌다.

최상준 회장은 금년에"전국경총과 함께 대정부 · 의정활동 강화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성공을 위한 경영계 역할 제고, 청년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 금요포럼 활성화"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 일자리 위원회 3차 회의 참석〉

본회 최상준 회장은 2월 25일 개최된 광주시 일자리 위원회 3차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광주시와 현대차의 투자협약 체결에 따른 노사상생 일자리 완성차 공장 설립 추진계획에 대한 광주시의 보고와 참석위원의 토론이 있었다.

최상준 회장은"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해서 경영계도 적극 참여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형 일자리 특별위원회 참석〉

본회 윤영현 상임부회장은 2월 26일 개최된 광주형 일자리 특별위원회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광주시와 현대차 투자협약에 따라 빛그린 산단 내 노사상생지원센터 건립 계획 등에 관한 광주시의 보고를 받고 위원회에서 아이디어 제공 등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이의 실천을 위해 정례적인 회의를 갖기로 했다.

〈한국경총 이사회 · 정기총회 참석〉

본회 윤영현 상임부회장은 2월 27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개최된 한국경총 이사회 및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년도 사업실적과 사업계획(안), 전년도 결산과 예산(안), 임원 보선(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다.

〈1431회 금요조찬포럼 개최〉

광주경영자총협회는 2월22일 오전 7시 신양파크호텔에서 김현욱 KDI경제전망실장을 초청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과 대응>이란 주제로 제1431회 금요조찬포럼을 개최했다.

우리나라는 수출무역을 중심으로 경제를 운용하고 있는 나라인데, 미국의 금리인상과 무역분쟁 심화,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 등이 향후 글로벌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투자 및 수출 등 민간부문의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고용은 제조업의 성장세 둔화에 따른 구조조정과 더불어 고용창출력이 높은 서비스업 경기가 부진하여 취업자 증가폭이 축소되고 있다.

2019년 한국경제 전망은 내수 경기가 둔화되는 가운데 수출 증가세도 완만해지면서 2.6%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장기적으로도 경제 활력제고를 통한 견실한 성장세 유지가 어려워지는 환경이 전개되고 있어, 혁신을 통한 사업구조 재편 등 구조개혁의 추진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1. 노사 동향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 19「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제9차 전체 회의를 개최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도 개선 관련 최종 합의 도출

○ 합의 주요 내용으로 단위기간 확대(최장 3개월 → 6개월), 도입 요건 완화, 근로자 건강 확보, 임금보전 방안 마련 포함

○ 금번 합의안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본위원회」등을 거쳐 국회에 전달될 예정

[참고 1]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 주요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단위기간		▲최대 6개월까지 확대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 시간제	도입 요건 완화	▲일별 근로시간 사전 확정방식을 주별로 완화, 최소 2주전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근로자에게 통보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 변경 가능
	임금 보전	▲보전수당 · 할증 등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 고용부장관에게 신고,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한 경우 신고 절차 예외
	건강 확보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의무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예외 인정
	시행	▲주 52시간제 시행시기에 맞춰 단계적 적용

■ 민주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는 가운데 금번 합의안에 반발하며 총파업 예고

○ 민주노총은 금번 합의안을 '야합'이라고 주장하고 3. 6 총파업, 임시국회 대응 상경투쟁 등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관련 법 개정 저지 투쟁을 강화한다는 방침

- 민주노총은 2. 20 광화문에서 조합원 3,000여명이 참여한 결의 대회를 개최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반대, ILO 핵심협약 비준 등 주장

※ 김명환 위원장은 결의대회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총력투쟁으로 막겠다”고 발언하고, 삭발식 진행

- 민주노총은 3. 6 총파업에 전체 조합원 4시간 이상 파업을 추진 중이며, 총파업 조직화를 위해 2. 18부터 집행부 현장 순회를 진행

■ 한편, 금번 합의를 둘러싸고 양 노총간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

○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2. 20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노총에 대해 “사회적 대화의 길이 열려있고 참여할 수 있음에도 참여하지 않고 반대만 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

■ 고용부는 2. 21 직장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 대응 매뉴얼 발표

○ 고용부는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올해 7. 16부터 시행됨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의 개념과 판단 기준 제시

○ 또한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시 조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취업규칙 표준안 제시

○ 고용부가 직장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인 만큼 기업들의 사전 점검

[참고 2] 직장내 괴롭힘 행위 유형 예시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 흡연 · 회식 참여를 강요함

■ 한국노총은 2. 19「중앙집행위원회」에서 2019년 임금인상 요구안으로 ▲정규직 월고정 임금 총액 기준 7.5%(274,050원) 인상, ▲비정규직 16.8%(274,050원) 인상을 결정

※ 월고정임금 총액 : 월 정액임금 + 상여금 월할액

※ 한국노총은 2. 27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사업계획 확정

■ 민주노총은 올해 임금인상 요구안으로 월 정액 205,000원 인상을 검토

※ 민주노총은 2. 21「중앙집행위원회」에서 올해 임금인상 요구안 확정 예정

○ 한편, 금속노조는 올해 ▲금속산별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지부집단교섭 임금인상 요구안으로 월 정액 123,526원 인상을 요구한다는 계획

[참고 3] 최근 5년간 양 노총 임금인상 요구 및 협약임금 인상율

연도	한국노총	민주노총	협약임금 인상율
2015	月 245,870원 인상 ※ 정규직 7.8% ※ 비정규직 17.1%	月 230,000원 인상	3.7%
2016	月 256,734원 인상 ※ 정규직 7.9% ※ 비정규직 17.3%	月 237,000원 인상	3.3%
2017	月 257,860원 인상 ※ 정규직 7.6% ※ 비정규직 17.1%	月 239,000원 인상	3.6%
2018	月 318,479원 인상 ※ 정규직 9.2% ※ 비정규직 20.4%	月 224,000원 인상	4.5% (11월말 기준)
2019	月 274,050원 인상 ※ 정규직 7.5% ※ 비정규직 16.8%	月 205,000원 인상	–

■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반대하며 투쟁 강화

○ 현대중공업지부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시 특수선, 해양플랜트 등 중복 사업 분야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며 고용보장 요구

- 현대중공업지부는 2. 20 대우조선해양 인수 반대 투쟁을 위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 가결

※ 투표 결과 : 재적 10,438명, 투표 9,061명, 찬성 5,384(재적대비 51.6%)

- 현대중공업지부는 금속노조와 연대투쟁을 강화한다는 방침으로 2. 27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매각 중단 및 조선업 고용안정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결의대회 진행 예정

○ 한편, 현대중공업지부는 2. 20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함께 실시한2018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결과 투표자 대비 50.9% 찬성으로 가결

- 합의안 주요내용 ▲기본급 4만5천원 인상(호봉승급분 2만3천원 포함), ▲2019년 말까지 고용보장, ▲성과급 110% 지급 ■ 금속노조 대우조선해양지회는 2. 18 ~ 19 매각 반대 투쟁을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적 대비 86.1% 찬성으로 가결

※ 투표결과 : 재적 5,611명, 투표 5,242명, 찬성 4,831명(재적대비)